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급등... 유동성 회수땀 경색 우려

(주식·부동산 등)

>> 1면 '시중에 풀린 돈'서 계속

유동성 경색 돌연 나타날 수 있어
신흥국 리스크 등 예의주시해야

자산시장 과열의 원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통화·재정정책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175조원 상당의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한 총 2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기업과 가계 역시 서둘러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4월 통화량(M2·광의통

화)은 3018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DB금융투자 박성우 연구원은 "정부가 민간의 소득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대처 차원에서 지출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수요가 늘 것"이라며 "과거의 유동성 투입이 그랬듯이 향후에도 돈은 실물보다는 투자자산 위주 중심으로 흘러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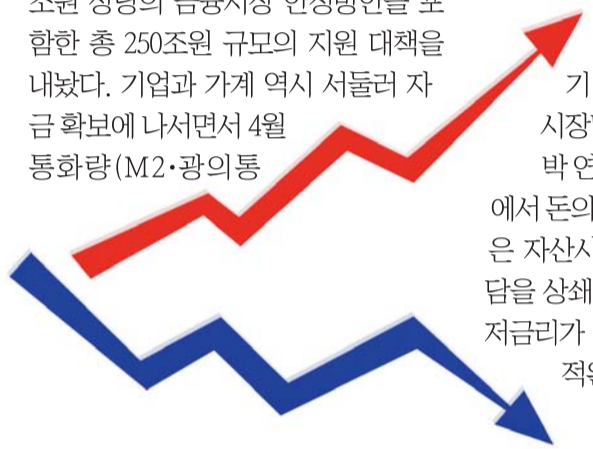
실물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구조적 요인은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디플레이션(Deflation·지속적 물가 하락으로 인한 장기 침체) 기류는 이어지고 자산시장만 들쭉일 것이라 얘기다.

박 연구원은 "무한한 유동성 상황에서 돈의 물꼬가 흘러갈 가장 낮은 곳은 자산시장"이라며 "늘어난 부채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인위적·자연적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고, 저금리와 양적완화는 채권금리를 낮출 수

준으로 유지해 결국 현금흐름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등의 매력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동성에 의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강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해외경제포커스)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국제기구·선진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과정에서 국제금융불안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유동성을 회수할 때 신흥국을 중심으로 추가급락 등 금융불안이 일어났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

한은은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점검해본 결과 단기내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신흥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함에 따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로나 쇼크에 美 기업 부실 심화... ‘좀비기업’ 나올수도”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기업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자 부담도 못 버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이후 미국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기업부채

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기업재무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유동성(liquidity), 채무상환능력(solvency)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유, 석유제품 등 에너지와 기계장비 등 산업재, 숙박 음식·자동차 등 경기소비재 등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업종은 현금소진 위험기업 비중이 높아 단기 유동성 충격에 취약하고 부채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의 자금조달이 없다고 가정했

을 때 분석대상 기업의 22.2%가 보유현금을 1년 내 소진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금소진 위험기업이란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과 영업활동으로 영업비용, 단기부채,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뎠다면 이들 업종의 고부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들이 자금을 전액 부채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부채기업 비중은 올해 18.9%로 전년(6.3%)보다 3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hj89@

“만성질환 의약품 국산화”

>> 1면 '서정진 회장 3300억'서 계속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인수금액은 3324억원, 셀트리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회사 셀트리온AP가 양수받는 구조로 이뤄진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셀트리온이 보유한 현금자산이 59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인수금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셀트리온이 인수하는 제품군에는 글로벌 개발신약인 네시나, 액토스(당뇨병 치료제), 이달비(고혈압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화이투벤(감기약), 알보칠(구내염 치료제) 등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반의약품도 포함돼 있다.

해당 제품군은 지난 2018년 기준, 약 1억4000만 달러(약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9% 가량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중 네시나와 이달비는 각각 2026년, 2027년경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돼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시장 확장 '양날개'

이번 M&A로 셀트리온은 케미컬 사업 강화와 아태 시장 확장이라는 두가지 동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사실상 케미컬 사업부 확장은 서회장의 오랜 숙원이었다. 서회장은 지난 2010년 부터 바이오시밀러에 집중된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난 2015년에는 1500억원을 투입, 충북 청주에 국내 최대 케미컬 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오창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지속적인 케미컬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장했지만,

아직까지 셀트리온만의 의약품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인수한 의약품들은 향후 오창공장을 통해 생산, 셀트리온 제약의 이름을 달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공급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당분간 다케다 제조사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향후 기술 이전 과정을 거쳐 셀트리온제약의 생산시설에서 생산,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셀트리온 브랜드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미국 지역에 집중됐다면, 셀트리온의 케미컬 제품들은 다케다의 전문 의약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조기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의 기존 파이프라인과의 시너지를 통한 매출 성장 기대도 높다.

미래에셋대우 김태희 연구원은 "의약품 포트폴리오 구축과 영업망 확보로 신제품 출시가 용이해졌다"며 "현재 개발 중인 인슐린 바이오시밀러와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 해의 뉴스·시사 자료가 한권에... '연합연감 2020' 출간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20년판이 6월 8일 출간됐습니다. 14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올해 연감은 2019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분야별 주요 뉴스를 사진과 함께 기록했으며, 각종 통계와 도표 등도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핵심뉴스로 뽑은 '초점'으로는 남북이 정상 판문점 회동,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논란, 김제징용 판결에 이은 한·일 갈등 고조, 패스트트랙 1년 대치 끝에 공수처법·선거법 통과, 베일 벗은 연세살인범 이춘재 등을 다뤘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의 세계 영화제 석권과 스포츠 '한류' 류현진, 손흥민, 박항서, 고진영 등의 활약상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는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보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또 주요 사건·사고를 일자로 요약, 정리했으며 국내외 및 북한의 주요 뉴스를 화보로 묶었습니다. 각각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를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면에선 국내 및 세계 통계,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획기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 명단도 게재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으로 이뤄진 북중·북러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참조해 분석,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도와 함께 나열한 시·도 지리와 김정은 신년사를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연설 및 각종 담화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북한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을 소개해 자료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1981년부터 연감 제작을 시작해 올해로 통틀어 40권을 발간했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384쪽
- 가격 : 18만원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경기(031)238-2222, 경기북·강원(031)569-7788, 인천(032)441-2007, 대전·충청(042)521-9705, 광주(062)264-5777, 경남(055)281-0010,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56-3800

www.yonhapnews.co.kr